

AI 반도체 차익실현과 가치주로의 이동, 다우 사상 최고치 기록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hyseong@ls-sec.co.kr

기술주→비기술주로의 순환

- 미 증시는 DOW +1.73%, S&P500 +0.41%, NASDAQ -0.09% 혼조. 기술주 약세 와중 헬스케어, 금융, 산업재 등 상승, 나스닥지수 대비 다우지수 강세
- 브로드컴(-12.6%) 실적이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다 가이드라인 상향 부재에 따라 마이크론(-7.6%), AMD(-3.6%) 등 차익실현 매물 출회, 상대적으로 비기술주, 가치주로 투자수요 이동 양상
- 전일 사모신용대출 환매 제한조치 관련 우려로 약세였던 사모펀드주도 일제히 반등 흐름. 블랙스톤(+7.5%), KKR(+5.5%) 등

지정학 갈등 완화 기대에 국제유가 하락

- 장전 이스라엘-레바논 휴전 협상 보도. 다만, 헤즈볼라 측은 미국이 중재한 휴전 합의에 거부 의사.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휴전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전쟁 재개에 소극적이라는 WSJ 보도에 유가 하락
- 러시아 특사가 미국측 관계자들과 활발한 대화가 진행중이라 밝히면서 러-우 종전 협상 기대감도 확대, 역시 유가 하락 기여. 한편, 러시아 매체는 미-러를 잇는 베링해협 해저터널 설계를 위한 협정이 곧 체결될 것이라 보도

국채금리는 소폭 하락, 고용보고서에 쏠릴 시선

- 5월 챌린저 감원보고서 미 기업 감원계획 9.7 만명으로 MoM +11%, YoY +3.4% 증가. 감원의 약 40%는 AI 도입과 관련되어 있으며, 관련해 미 기술기업 감원 규모 8,242 건, 1년 9개월래 최고치를 기록
-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.5 만건, 전주치·컨센 상회. 1 분기 비농업 생산성 QoQ +0.3%, 1 분기 단위노동비용 QoQ +1.8%, 모두 전분기·컨센 하회
- 한편 6월 FOMC 를 앞두고 5일 발표 예정인 비농업 고용보고서의 내용에 시장 귀추 주목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AVGO	브로드컴	-12.6%	전일 장 마감 후 실적발표. 차기 분기 AI 반도체 매출 가이드선 시장 예상치 하회에 AI·반도체 투심 급변 주도. 대부분 기관에서 TP 상향했으나, UBS는 공급 제약을 근거로 TP \$490→\$485로 하향. 맥쿼리는 구글의 자체 칩 개발 전환에 대한 우려로 투자 의견 '시장수익률 상회'→'중립'으로 하향, TP \$437로 제시
GOOG	알파벳	+3.8%	4일 연속 주가 하락 후 반등. 캐시우드의ARK와 버크셔해서웨이가 동시에 매수에 가담하며 주목. ARK는 주력 펀드(ARKK)를 통해 알파벳 클래스 A 및 C 주식을 각각 97,420주 매입. 기타 테마형 ETF를 통해서도 매수 집행.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레그 아벨 CEO 취임 이후 첫 주요 행보로 월요일 알파벳 보통주 \$10B 규모를 약 6% 할인된 가격에 신규 매입. 또한 당사는 텍사스주에 1GW급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발표
INTC	인텔	-0.8%	브로드컴발 악재로 반도체 섹터 하방 압력 받은 가운데, 장중 낙폭 축소. 인텔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폭스콘과 차세대 AI 시스템 공동개발 파트너십 체결 발표. 인텔 제온(Xeon) 프로세서 기반 랙 스케일 인프라, 냉각 기술, Edge/피지컬 AI 플랫폼(로봇, 스마트팩토리, 전장 등) 및 ASIC 디자인 협력 등 포함
BX	블랙스톤	+7.5%	자사 주력 사모대출펀드(BCRED)의 환매 제한 조치에 주가 반등. 2분기 중 사모대출펀드 지분 약 10%의 환매요청을 접수했으나, 5%로 환매 상한을 제한. 이는 펀드 자산의 7.9%에 달하는 모든 환매 요청 수용했던 1분기와 상반된 행보. KKR(+5.5%), 블루아울캐피탈(+5.2%) 등 동반 강세
UNH	유나이티드헬스	+5.2%	주요 IB의 낙관적 리포트 및 목표가 상향 소식에 주가 상승. BofA는 투자 의견 '중립'→'매수', TP \$420→\$450 상향. 모건스탠리는 투자 의견 '비중확대' 유지, TP \$395→\$453 상향
HUM	휴마나	+6.8%	모건스탠리는 휴마나의 TP \$217→\$249로 상향 조정, 다만 투자 의견 '비중축소' 유지